

유럽 축구 역사상 9번만 허락한 '트레블' 역사

자국 정규리그·FA·챔스 한 시즌에 모두 우승 뮌헨, 7년 만에 '트레블'...구단 역사상 두 번째 아시아 축구에선 '트레블' 아직 나온 적 없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생제르맹(PSG)을 꺾고 7년 만에 유럽 정상에 오르며 유럽 축구 역사상 9번째 트레블 위업을 달성했다.

뮌헨은 2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킵카의 골을 앞세워 PSG를 1-0으로 이겼다.

뮌헨은 분데스리가 독일축구협회(DFB) FA컵 격인 포칼을 제패한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컵 '빅 이어'까지 들어올리며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에 트레블(3관왕)에 성공했다.

유럽 축구 사상 두 차례 트레블을 이룬 구단은 뮌헨과 바르셀로나(2009년·2015년)뿐이다.

축구에서 3관왕으로 불리는 일명 '트레블'은 대륙별 축구협회(FA) 내에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프로축구리그에서 한 클럽 팀이 자국 정규리그, FA컵, 대륙별 클럽대항전(챔피언스리그) 3개 대회를 한 시즌에 모두 우승하는 걸 의미한다.

축구의 보고장인 유럽에서도 지금까지 단 9팀에게만 허락한 '신의 영역'으로 통한다. 그만큼 '한 시즌'에 이 3개 대회를 동시 제패하는 건 매우 어렵다.

특히 TV중계권 산업 발달로 대회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각 구단들은 과거보다 소화해야 하는 경기 수가 훨씬 많아졌다.

유럽의 명문 클럽이라 해도 한 해 50경기가 넘는 빡빡한 일정 속에 3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도 FA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챔피언스리그는 OK, 유로파리그는 NO

UEFA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클럽대항전은 각국 상위권 팀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스리그와 그 아래 팀들이 나서는 유로파리그로 나뉜다. EPL의 경우 정규리그 1~4위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5~6위는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주어진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가 지난 시즌 리그 6위로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냈다.

진정한 트레블에서 챔피언스리그는 인정하지만, 유로파리그는 아니다. 자국리그와 FA컵에서 우승해도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를 우승한다면 미니 트레블이 된다.

이는 리그컵도 마찬가지다. 각국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FA컵은 프로와 아마추어가 모두 나와 진정한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다.

리그컵은 프로팀들만 출전한다. FA컵 규모가 훨씬 크다는 얘기가. 실제로 유럽에서 리그컵을 따로 운영하는 국가는 잉글랜드(카오바오컵)와 프랑스(쿠프 드 라 리그) 정도다.

◇유럽에서 9번만 허락한 트레블

유럽에서 트레블 달성은 9차례 밖에 되지 않는다. 팀으로 따지면 겨우 7팀이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이 유일하게 2차례 트레블의 영광을 누렸다.

최초의 유럽 트레블 팀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FC다. 기성용(서울)의 유럽 첫 진출 팀으로도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셀틱은 1966~1967시즌 조크 스타인(스코틀랜드) 감독의 지휘아래 트레블을 달성했다.

셀틱은 정규리그와 FA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언컵을 동시 제패했다. 여기에 글래스고컵, 리그컵까지 더해 5관왕이란 업적을 이뤘다. 당시 셀틱은 1960년대를 호령한 유럽의 강팀 중 하나였다.

1970~80년대 트레블은 네덜란드에서 두 팀이 등장했다. '토타 사커'로 불리는 아약스가 1971~1972시즌 트레블을 포함 5관왕을 달성했고, 1987~1988시즌에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PSV인트호벤이 트레블 역사를 썼다.

훗날 2002 한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 사령탑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트레블 지도자'다.

1990년대 트레블은 '축구 중기' 잉글랜드에서 탄생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998~1999시즌 EPL, FA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제패했습다.

당시 맨유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캠프 누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반 막판까지 0-1로 뒤지다 연속 득점으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00년대 첫 트레블은 펠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차지했다. 2008~2009시즌 바르셀로나는 트레블과 함께 FIFA 클럽월드컵, UEFA 슈퍼컵, 스페인 슈퍼컵에도 전부 우승한 6관왕을 완성했다. 바르셀로나는 2014~2015시즌에도 트레블에 달성하며 유럽 구단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의 트레블을 차지한 팀이 됐다.

2009~2010시즌에는 주제 무리뉴 감독의 인터미란이 트레블과



함께 5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 최초의 트레블이자, AC밀란의 그늘에 가려졌던 인터미란의 찬란한 역사 중 하나다.

독일 최강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은 2012~2013시즌 유프 하인케스 감독과 함께 구단 역사상 첫 트레블에 성공했다. 당시 뮌헨은 분데스리가, 독일 FA컵인 DFB포칼, 챔피언스리그를 동시 제패했으며, UEFA 슈퍼컵과 FIFA 클럽월드컵까지 거머쥐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9~2020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강전부터 단판 토너먼트로 치러진 대회에서 전승으로 우승하며 통산 두 번째 트레블 역사를 썼다.

◇아시아 클럽의 '트레블'은 아직 없다

아시아 클럽에서 트레블을 완성한 팀은 아직까지 없다. 지금은 해체돼 사라졌지만, 태국의 타이농민은행이 1994~199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아시아클럽챔피언십과 리그 우승을 달성했지만, FA컵이 아닌 퀸스컵에서 우승해 트레블에 실패했다.

중국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광저우恒大는 2013년 자국 슈퍼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를 동시 제패했지만, 역시 FA컵에서 구이저우 런허에 패해 트레블이 무산됐다.

K리그에선 1995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와 2013년 포항스틸러스가 정규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며 '더블'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트레블을 달성한 팀은 없다. 1997년 부산 대우 로얄즈(현 부산 아이파크)와 1999년 수원 삼성 FA컵과는 연이 없었다.

◇레반도프스키, 역사상 2번째 '득점왕 트레블'

뮌헨의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유럽 축구 사상 두 번째로 '득점왕 트레블'을 달성했다. 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5골을 뽑아내며 득점왕에 올랐다. 앞서 분데스리가(34골), 포칼(6골)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는 세 개 대회 득점왕 타이틀을 모두 휩쓸었다.

유럽 축구 사상 9번의 트레블에서 득점왕 트레블까지 이룬 선수는 레반도프스키를 포함해 2명 밖에 없다.

네덜란드 전설 요한 크루이프가 1971~1972시즌 아약스 소속으로 트레블과 함께 득점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크루이프는 에레디비지에 25골, 네덜란드축구협회(KNVB)컵 3골, UCL의 전신인 유로피언컵에서 5골을 넣었다.

전남도청 펜싱 에베팀 올해 2관왕 달성 “금빛 찌르기”

에베 단체전서 또 계룡시청 꺾고 2관왕 달성



전남도청 펜싱팀이 8월에만 무려 두 번의 전국대회를 제패하며 올해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전남도청 펜싱 에베팀(유진실, 김향은, 박소형, 유단우)은 21일 강원도 양구에서 끝난 제58회 전

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 여일부 에베 단체전에서 또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전남도청은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에서 대통령배를 휩쓸고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한 번 금빛 찌르기를 보여주며 올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8강에서 광주서구청을 45:33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오른 전남도청은 부산광역시청을 꺾고 올라온 강원도청을 준결승에서 만나 45:37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지난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만난 계룡시청과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 전남도청은 이번에도 44:41로 승리하며 적수가 없음을 보여줬다.

한편, 에베팀 뿐만 아니라 사브르 팀도 활약을 이어갔다. 전남도청 사브르팀(김지현, 박다운, 최세빈, 박한휘)은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에서 익산시청에 42:45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최세빈은 사브르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기쁨이 배가 됐다.

김정환 기자

도쿄 패럴림픽 개최, 경기단체 77% “불안하다”

69% 도쿄 패럴림픽 개최 여부 “모르겠다”

일본 도쿄 패럴림픽이 24일로 1년을 앞둔 가운데 관련 경기단체들의 77%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자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도쿄 패럴림픽 관련 총 26개 단체 가운데 77%는 앞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강화와 대표 선발 등에 ‘불안’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최 대회 개최”에 대한 불안이 58%, “해외 원정”에 대한 불안이 54%, “(선수) 대표 선발”이 35%였다.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클래스 분류”도 31%였다.

26개 단체 가운데 25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전 세운 ‘강화 계획’에 대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개 단체는 무응답이었다.

아울러 도쿄 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자 “모르겠다”가 69%에 달했다. 이유로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확립 시기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 등이었다. “할 수 없다”는 23%에 그쳤다.

내년에 패럴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58%가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응답은 42%였다. “재연기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재연기 하면 선수의 의욕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광주 서석중 감독부, '대한검도회장기 단체' 준우승

1-2회 대회서 각각 준우승과 우승 차지

광주서석중학교(교장 김성관) 감독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단체 준우승과 개인전 3위를 차지하며 광주 검도의 자존심을 지켰다.

서석중(감독 이재경)은 지난 21~23일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3위에 올랐다.

서석중은 준결승에서 서원중(충북)을 4-1로 가파르게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석중은 결승에서 숙적 광명중(경기)과 맞붙었다. 울

해 강호로 손꼽히는 광명중은 명성대로 실력을 과시했다. 서석중은 경기 내내 고전했지만 0-3으로 패해 어렵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개인전에서는 김민수(3년)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수는 준결승에서 남궁도훈(광명중 2년)을 만나 초반 팽팽한 접전 끝에 머리치기로 선취 득점에 성공했지만 후반 머리와 손목을 잇따라 내주며 1-2로 3위에 머물렀다.

기동취재본부



서석중 감독부가 대회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왼쪽 이재경 감독, 맨오른쪽 오상은 코치 등)

토론토 선발진 비상...손튼·슈메이커·피어슨 줄부상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선발 투수들의 줄부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에이스' 류현진(33)의 어깨도 무거워진다.

토론토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트로피카나 세인트 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에서 4-5로 졌다.

패배보다 더 뼈아픈 건 선발 트랜트 손튼의 부상이다. 이날 선발 등판한 손튼은 오른 팔꿈치 염증으로 1이닝 만에 강판됐다.

손튼은 지난 7일에도 팔꿈치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IL)에 등 록된 바 있다. 복귀 직후 부상 재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토론토의 시름도 깊어졌다. 토론토는 이미 경기 전 맷 슈메이커를 오른 어깨 염증으로 IL에 올렸다. 특급 유망주 네이트 피어슨도 팔꿈치 통증으로 IL에 등재됐다.

선발 자원 3명이 이탈하면서 토론토의 선발 로테이션에도 비

상이 걸렸다.

MLB닷컴은 "토론토에서 건 강한 선발 투수는 류현진과 테너 로어크, 체이스 앤더슨 등 3명만 남았다"고 짚었다.

토론토는 지난해에도 선발 마운드가 무너져 고전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단 역대 투수 FA(자유계약선수) 최고액을 들여 류현진을 영입하는 등 마운드 보강에 나섰지만, 투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다시 한숨을 삼키게 됐다.